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 백부장의 믿음 (마 8:5-13)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사람이었으며 자기 밑에 병사를 백 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 1. 사랑의 믿음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제국의 장교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적잖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종이 병든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유대인 예수님께 직접 나아와서 자기의 종을 위해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종의 아픔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사랑의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 2. 겸손한 믿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디”(8절).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에 놀랐고, 이어서 겸손한 믿음 때문에 또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며,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 3. 큰 믿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10절).

‘이만한 믿음’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such a great faith’ 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이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 반석같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체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명령도 이뤄지는데 하물며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이와 같은 사랑의 믿음, 겸손의 믿음, 큰 믿음을 본받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The Faith of Centurion (Matt. 8:5-13)

A centurion in the text was a Roman and commanded a company of 100 soldiers. Jesus was astonished by his faith.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1. The faith of love

The centurion was an army officer of the Roman emperor that dominated Israel. Though he was not in a high rank, he was able to exercise more than a little of his authority. Nevertheless, he was painfully sympathized with his soldier's illness. The Roman centurion directly came to Jesus, the Jew with his pretty loving heart and earnestly entreated Him to heal his servant'

The centurion approached to Jesus with his aching heart and asked him to heal his servant who was not cared by anyone. By looking into such a mind and faith of love, Jesus was very astonished by him.

### 2. The humble faith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But jus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v. 8).

Jesus was astonished by the centurion's love. Subsequently, He was astonished due to his humble faith. He clearly knew who Jesus was. He knew and believed that Jesus was a King of Kings, a creator of the universe, God who created the universe with a word, and an almighty God who is eternal in his grace, glory, and power.

### 3. The great faith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stonished and said to those following him, ‘I will tell you the truth,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v.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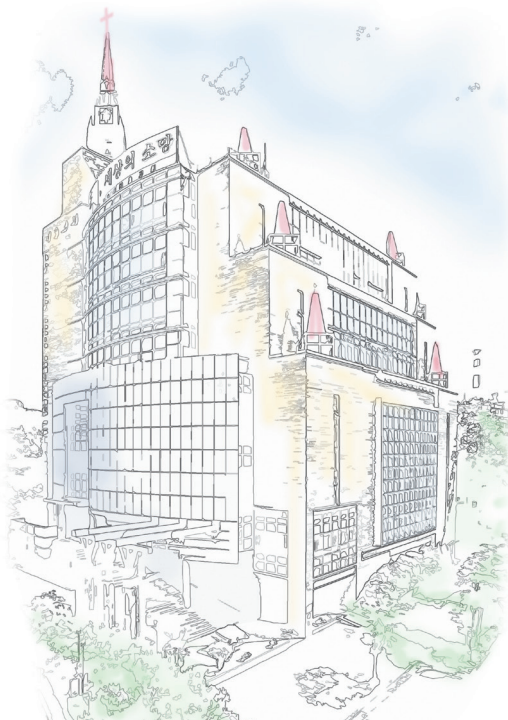
The word, ‘such a great faith’ is written in the English Bible, which means a big belief, a great faith, and the faith like a rock.

The centurion knew the system of order very well because he himself was a soldier. As human's order can be accomplished, much more the order of Creator, God, Jesus who created the universe with His word, he made no doubt of Jesus word's

accomplish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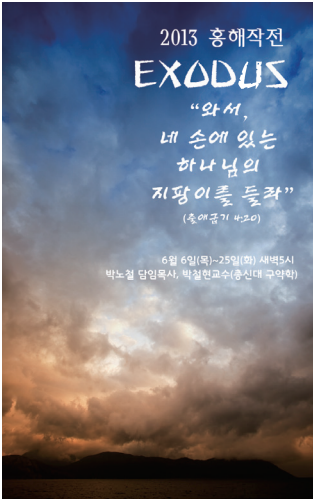
My beloved Christians,

By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centurion like a life full of faith of love, a humble faith, and a great faith,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fully have the victory in your life, in your family, and at work.



# 2013 흥해작전 은혜 중에 진행된다

##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



2013년 흥해작전(참모장 하영수 장로)이 “와서,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 (출애굽기 4:20)는 주제로 승전을 위한 행진이 시작되었다. 첫날인 6월 6일, 본당 2, 3층을 성도들이 가득 채웠고, 흥해를 건너기 위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6월 25일(화)까지 매일 새벽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해라는 커다란 장애와 시련 앞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한 기적의 역사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기도하며 응답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다. 특별히 2013흥해작전은 많은 다음세대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푸짐한 나눔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참석하는 교육1국(영아~초등부) 학생들에게는 매일 어린이 출석상(학용품)을 준다. 예배 후 2층 데스크에서 출석 스티커와 같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과 같이 장년부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는 7번, 청년1,2,3부는 14번 이상 출석하면 개근상을 준다. 교육1국 학생들은 "흥해작전" 스티커를 부착한 출석카드를 제출하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1,2,3부 청년들은 주일본반공부(다락방모임) 시간에 교사들의 확인 후 명단을 흥해작전 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금년 처음으로 사행시가 칠행시 짓기로 바꾸어 진행 되는데, 전교인 대상으로 칠행시 (하/나/님/의/지/팡/이)를 공모 중 이다. (영어예배부는 E.X.O.D.U.S로 유행시)

교육1국은 산문, 그림그리기 등 교회학교별로 5점씩을 선정하여 흥해작전본부로 제출하면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칠행시와 함께 시상한다. 마감은 6월 23(주) 오후2시이다.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서울교회 공식 페이스북인 익투스(<http://fb.com/seoullichthus>)에 접속하여 작품을 등록하거나 본인의 페이스북에 작품을 올리고 익투스에 게시물 공유를 요청하여도 된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서 취침하실 성도들은 남성은 702호, 여성은 706호를 이용하시고 아침에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한 간단한 아침식사도 준비하고 있다.

흥해작전 기간 중에는 금요기도회는 개별 기도로 대체 한다.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91)

(문 90) 삼상 28:8-16에는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자에 의해 사울에게 나타나 말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 우선 사탄이 산 자와 죽은 자의 대화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기적(살후 2:9)은 악마의 수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계시 전달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 나타난 유령인지 허깨비인지 그 같은 소리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13절)' 라고 한 것은 점신술이 거짓을 스스로 폭로한 것입니다(시 29:4). 성도가 몸을 떠나면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기(전 13:21, 12:7, 눅 16:22-23)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히멜렉과 놈의 제사장들을 대량 학살한 후 사무엘이 해야 할 예언을 들은 것은 무녀의 말이고 사울은 여전히 아무 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한 사무엘의 말로 알려진 무녀의 말도 성경교훈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거룩한 성도의 안식을 점신녀가 방해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범죄를 정확히 말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언, 즉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16절)과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17절),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 사실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도 바울의 일행을 가리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했습니다(행 16:17). 점신녀가 말한 것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사단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접한 일이나 영을 불러들이는 초혼의 행위는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강령술(점)이나 무당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로 성경은 저들을 쫓아내라 하셨습니다(신 18:9-12, 출 22:18, 레 19:26,31, 20:6,27 렘 27:9-10)

(다음 주 계속)



## 2013년 1학기 장년부 수료자 명단

1. 개근자 : 강석조, 강승웅, 강택근, 김광욱, 김규승, 김금희, 김상태, 김성균, 김순영, 김양경, 김재중, 김치삼, 문수자, 박복순, 박석현, 박은영, 박은정, 배동근, 송인권, 신규식, 안인호, 양원호, 여현진, 오재욱, 유근중, 유복진, 윤정선, 이상욱, 이상호2, 이승언, 이신애, 이학주, 임종태, 전두병, 전숙향, 전용순, 정미자, 정숙, 정유선, 정창평, 주동재, 차도훈, 최규초, 최명남, 최성욱, 최소희, 최학인, 홍정란, 한혁수(이상 49명)

2. 수료자 : 공민호, 광숙, 권오철, 김기순, 김광배, 김미선, 김미중, 김민아, 김복희, 김숙영, 김승록, 김연희, 김용자, 김인숙, 김재근, 김정희, 김진희, 김희옥,

남경혜, 노제현, 노종렬, 류운형, 민경철, 박길자, 박동식, 박동우, 박미영, 박우주, 박정란, 박창호, 박철용, 박희석, 방효철, 배은희, 백경애, 백승경, 서상근, 서영희, 손용문, 송민정, 송영미, 송인덕, 송희경, 안미경, 오세복, 유미숙, 유선희, 유슬기, 유하영, 윤정희, 이경란, 이기수, 이명신, 이미숙, 이영기, 이영란, 이용성, 이윤진, 이은상, 이재현, 이진숙, 이한룡, 이홍숙, 임근수, 임영숙, 장호림, 장화선, 전미애, 전영돈, 정윤희, 정일재, 정진희, 정희자, 최금숙, 최원석최현순, 하정자, 한미희, 한승희, 한종우, 홍진경, 황성희, 한효숙, 허희승(이상 84명)

수료자 합계 : 133명





#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기원(祈願)

매년 6월 둘째 주일은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이다. 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담화문을 통하여 “총회가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는 까닭은 순교의 정신이 한국교회의 기초요,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순교신앙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믿음이요, 순교 신앙에는 스스로 고난을 당하나 하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오늘 한국사회는 이러한 순교신앙의 치유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주기철 목사와 오정모 사모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척박한 땅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들은 실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 죽은 이들이다.

지금으로부터 147년 전인 1866년 9월 평양 대동강 변에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



손양원 목사

언더우드 목사, 윌리엄 베어드 목사 등등 그들의 피가 오고 오는 날 동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땅의 순교자는 결코 외국인 선교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기철 목사는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기원(祈願)입니다. 나에게서 일사각오(一死覺悟)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끝

오늘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의 은혜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름도 없이 순교한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을 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Espect Great things form

chigo 성경책을 던져주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 조선 관군에 의해 깔려 순교를 당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 그는 조선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다. 이렇듯 한 사람의 선교적 헌신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 청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의 헌신은 조선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어디 그 뿐인가 존 해론 목사, 아펜젤러 목사,

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했으며, 손양원 목사와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씨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공산당을 반대하다가 순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순교적 신앙을 결단코 오늘에 이어가야 할 것이다.

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했으며, 손양원 목사와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씨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공산당을 반대하다가 순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순교적 신앙을 결단코 오늘에 이어가야 할 것이다.

(편집부)



## 해병대교육훈련단 진중세례 및 성찬식을 마치고



차동길 성도 (비전2020운동본부)

서울교회 비전 2020 운동본부(부장 이갑진 장로)는 지난 6월 1일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집례로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훈병 1172기를 대상으로 진중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였 습니다.

해병대교육훈련단은 귀신 잡는 해병, 신호를 남긴 해병, 무적해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해병대의 요람이며 또 본인이 지휘했던 부대이기에 이번 세례식에 설레임과 기대감이 참으로 컸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본 병식의 맛과 전장리터십훈련장을 비롯한 부대 곳곳의 정

겨운 풍경이 저에게는 크나큰 행복이었습니다. 극기주 훈련을 마치고 일주일 후면 수료식이 예정되어서인지 예배에 참여한 훈병들은 자신감과 여유로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 있던 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해병대로 몰렸 습니다. 지금도 평균 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대하는 소수 정예 해병이기에 이들이야말로 기드온의 삼백 용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면 서복도서(백령도, 연평도)로부터 제주도에서 이르기까지 최전선에 배치되어 국가안보의 첨병으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해병들이기에 이들에 대한 세례가 개인은 물론 군과 국가에 복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설교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오늘부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

을 만천하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해병 전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해병 정신으로 적의 의지를 분쇄하고, 도발 시에는 완전하게 승리하는 충성스런 해병이 되어 줄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기에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비전 2020 운동본부는 또 다른 전선을 향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시고, 먼 길 마다않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기도로 동역해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홍해작전

# 유선아, 홍해작전 가자



이수정 집사  
(9교구)

“유선아, 홍해작전 가자”라는 말에 올해도 어김없이 홍해지기 9년차 유선이는 벌써 일어납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준비하는 시간은 기상과 함께 10분이면 바로 교회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벌써 9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정의 홍해작전은 6월

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홍해작전이었다면 금년의 홍해작전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갈수 밖에 없는 절실한 마음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찾아온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그로 인한 여러가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해작전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실행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박철현교수님의 주님은 거기 계시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홍해작전 끝까지 잘 완주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경험으로 머무는 믿음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도 담대히 나아가는 강한 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모두 새벽을 깨워 끝까지 승리하는 서울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울리는 한마디 “유선아, 홍해작전 가자” 이 말이 끝나는 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에 꼭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홍해작전은 누구에게나 일상 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날 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매년 다가오는 6월이 우리에게 는 홍해작전이라는 특별 새벽기도로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삶을 돌이켜 보 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히 올해의 홍해작전은 우리가족에게 아주 귀한 의미있는 작전이 될듯합니다. 우리가족에게 산재되어 있는 홍해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의 홍해작전은 의례히 서울교회 성도들 이라면 누구나 참가해야 하는 특별새벽기도였고, 기

##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6월15일(토) 오전9시-오후6시/ 서울교회

서울강남노회 아동부연합회 주최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6월15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실시된다. 개회예배 및 주제 강의를 박노철 목사가 담당한다. 서울교회 교육1국 모든 교육전담교역자와 교사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

## 족구선교회 소식

서울교회 족구선교회는 지난 5월 25일 제4회 서초구청장배 족구대회에서 특별부 우승을 하였다. 또한 서울교회, 한별교회(이용식목사), 동산교회(이성득목사) 등 3개 교회 친선 족구대회가 6월 8일(토) 청주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족구선교회에서는 함께 할 족구선교회원을 모집한다. 족구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문의: 회장 진승근집사(011-342-8221)  
총무 장창수집사(010-3796-1193)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일(화) 몽골울란바타르대학교(UBU)제17회졸업식에서 UBU 명예총장으로 격려사를 하기 위해 10일(월)출국하여 13일(목) 귀국한다. 14일(금) 서울장신대 교수위원회에 참여한다. 15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월례모임을 소집한다.

■ 전서: 4교구 유기찬 집사 건축회와 한글교류작품전 6월11(화)~18(화)일본 기타큐슈 모지코  
■ 이사: 3교구 주민호 오재영 성도  
강남구 역삼2동 은하수 아파트  
: 2교구 김수임 최창구 성도  
강남구 세곡동 리엔파크 204동 603호

■ 주간식당봉사: 엘리야선교회(6.9) 모세선교회(6.16)  
■ 금주의 식사: 이영옥 성도 최금봉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3년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의 바다 한 가운데로 노저어 나가도록
2. 강사 박철현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말씀의 응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 받는 종이 되도록
3.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교회는 더욱 애국하는 교회가 되고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서울교회를 통해 배출되도록

## 제 13기 카자흐스탄 비전트립 훈련 개시

제 13기 카자흐스탄 비전트립(지도 서명철 목사, 단장 이준호 집사) 훈련이 지난 6월 5일(수)부터 시작되었다. 7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2부예배 후 8시부터 9시까지 602호에서 모이는 훈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 5일 : 비전트립의 목적과 방향(서명철 목사)  
선교계획 오리엔테이션(이준호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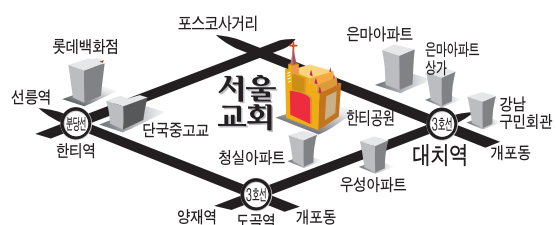
6월 12일 : 선교지 현장과 선교방향 이해(서명철 목사)  
6월 19일 : 카자흐스탄 국가 개관(이준호 집사)  
6월 26일 : 카자흐스탄 선교 경험(홍일성 집사)  
7월 3일 : 카자어 훈련(임기선 자매)  
7월 10일 : 카자흐스탄 질병과 대책(의료팀)  
7월 17일 : 부서별 마무리, 전체 점검  
7월 26일 : 철야기도회  
7월 28일 : 발대식  
8월 2일-9일 : 카자흐스탄 비전트립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예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